
 한국건강가정진흥원 <small>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</small>		<h1>보도자료</h1>			
http://www.kihf.or.kr					
보도일시	2025. 12. 16.(화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온라인: 2025. 12. 15.(월) 오후 12:00 이후			총 3쪽	
배포일자	2025. 12. 15.(월)	담당부서	가족상담서비스부		
담당부서장	강복정 부장(02-3410-7920)	담당자	오인숙 팀장(02-3140-7928) 박도은 사원(02-3140-7925)		

가족상담전화 1577-4206, 비대면 전문가족상담 시범사업 성공적 종료

- 만족도 80.4점 · 정서안정 효과 확인, 전국 공공상담체계 고도화 기반 마련 -

- 한국건강가정진흥원(이사장 박구연)은 가족상담전화(1577-4206)을 통해 올해 3월부터 추진해 온 ‘비대면 전문 가족상담서비스’ 시범사업이 8개월 간의 운영을 마치고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.
- 비대면 가족상담서비스는 가족문제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전문 상담사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. 참여 대상자는 ‘가족상담전화(1577-4206)’ 이용자가 신청을 통해 선정되거나 가족센터 의뢰를 통해 모집됐다.
- 이번 시범사업은 가족상담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완화 및 상담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시작되었으며, 2025년 3월 6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국 200명을 대상으로 486회(평균 2.4회/명) 상담을 진행하였다.

【 비대면 가족상담서비스 개요 】

- 상담채널: 전화(1577-4206 - 내선 2번)
- 상담시간: 주중(화, 14:00~16:30), 야간(화,목, 18:20~21:00), 주말(토, 09:50~12:30)
- 상담회기: 전문 가족상담사와 최대 3회, 회기당 30~40분 상담 가능

- 이용자가 호소한 가족문제는 주로 부부갈등, 부모-자녀 갈등, 원가족 갈등, 개인적인 심리 문제였다.
- 갈등의 주요원인은 소통 및 이해의 부족, 분노, 고립, 자책, 무기력 등 개인적 문제와 가족 문제가 복합적인 것으로 분석됐다.
- 이용자 중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3.4배 많았으며, 약 60%는 서울·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.

【 비대면 가족상담서비스 주요통계 및 내용 】

<주요 통계>

- * 지역: 서울 36.5%, 경기 23.5% 인천·경남 각 6%, 무응답 9% 등
- * 성별: 여성 77%, 남성 23%
- * 연령: 40대 25%, 30대 21%, 50대 13%, 60대 6.5%, 70대 이상 4.5%, 무응답 27.5%

<주요 내용>

- * 남녀 모두 40대(남성-30%, 여성-23%)가 가장 많이 상담을 의뢰했다.
- * 남녀 모두 가장 많이 호소한 내용은 부부상담(41%, 남성-45.6%, 여성-39.6%)이며 부모자녀상담(35%, 남성-32.6%, 여성-35.7%)이 그 뒤를 이었다.
- * 부부갈등상담 요청은 40대 남성(19.5%), 30대 여성(11.6%)이 많았고 그들 중 50% 이상은 소통이해부족을 갈등요소로 꼽았다.
- * 남녀 모두 70대 이상의 주 호소내용은 부모-자녀간 문제로 소통이해부족과 관계단절을 언급했다.
- * 부부갈등의 주요 내용: 소통 및 이해 부족, 성격과 생활방식 등 차이, 신뢰 관계 깨짐, 배우자의 폭력, 이혼 전후 갈등 등
- * 부모-자녀 간 갈등 주요 내용: 소통 및 이해 부족, 자녀의 문제 행동, 부모의 문제 행동, 양육 태도, 관계 단절 등
- * 개인문제, 형제 등과의 갈등 주요 내용: 개인적 심리문제(우울, 불안, 부적응 등), 소통 및 이해 부족, 대화방법 부재, 부양 등 역할 분배 등

- 만족도 조사 결과, 이용자 200명 중 138명(69%)이 응답했으며, 전체 만족도 항목인 ‘ 전반적 서비스 도움 정도 ’ 는 80.04점이었다. 응

답자의 90.6%는 “상담으로 호소문제가 일부 해소되거나 정서 변화를 경험했다” 고 답했다. 특히 가족센터 의뢰 이용자의 만족도는 87.60점으로 나타나, 상담 대기 기간 동안 비대면 가족상담서비스를 이용한 것이 심적 안정감을 찾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.

○ 다만 상담사 의견 수렴 결과, 기존 30분으로 운영되던 상담 시간 연장과 상담 회기 운영 횟수에 대한 개선의견이 제기됐다.

□ 박구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“2026년에는 운영시간 및 상담횟수 확대, 전문상담사 배치 강화 등을 강조하며 공공상담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” 이라고 전했다. 이어서 “이번 시범 사업을 계기로 전화센터가 ‘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,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’ 정서 안전망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 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